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폭풍 대응 실패에 따라 공공 서비스부에 유틸리티 회사 조사 지시

"우리는 악천우가 새롭게 대두된 현실이며, 열대성 폭풍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유틸리티 기업의 무모한 처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스(Isaias)로 인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고객이 어둠 속에 버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량 정전 사태와 유틸리티 업체의 실시간 고객 대응 실패는 이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고객이 전기 복구 시기를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에 버라이즌(Verizon),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 콘 에디슨(Con Edison), 센트럴 허드슨 가스 앤 일렉트릭(Central Hudson Gas & Electric), 오렌지 앤 록랜드 유틸리티(Orange and Rockland Utilities), 뉴욕주 일렉트릭 앤 가스(New York State Electric & Gas)를 조사하여 운영 실패의 실상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에 대한 답을 받아야 하며,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DPS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틸리티 기업의 경영진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업체는 피해 대응 및 복원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7,000명의 작업자를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이웃, 특히 노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